

‘그대는 나의 운명’ 꿈꾸는 평가사 박해천 대전충남지원 이력팀장

고객홍보팀

축산물품질평가원에는 2016년 2월 현재 300여명의 직원들이 건강한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각지 축산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생산농가나 유통관계자 등 축산·유통인이라면 축평원의 직원들과 함께 호흡을 나눈 경험이 있으실 테고 그만큼 익숙하시겠지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시라면 등급정보지를 통해 살짝 엿봤다고는 하지만 생소한 점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축평원이라는 그림을 이루는 300여명의 다양한 구성원 조각들은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축산·유통인들에게도 아직 미지의 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5년 ‘지원탐방’에 이은 기획 연재 2탄!! ‘우리, 만나볼란?’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하는 매력적인 축평원의 조각 다시보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등급정보 365*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이 사람이 궁금하다’하는 인물이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열심히 취재해 매력 한 터럭까지 탈탈 털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나볼란?’이 소개하는 첫 번째 알짜란 - 박해천 대전충남지원 이력팀장



2015년 말, 축평원과 우리 축산의 발전을 위해 지난 한 해를 불사른 열혈 직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그중 최고는 단연 ‘우수직원상 (종합부문)’. 그리고 그 무대에 박해천 대전충남

지원 이력팀장이 있었다.

1991년 2월 1일 입사한 공채 1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축평원의 지난 시간들을 모두 함께 하며 회로

애락의 역사 속에 함께 했다. 부정도축과 밀도살이 횡행하던 시기, 평가사를 맞는 살벌한 분위기는 여차 하면 뒤도 안 보고 도망갈 수 있었음직한 환경이었지만 그를 비롯한 축평원 공채 1기들은 사명감으로 이겨냈다.

“첫 입사 후 받은 교육 영향도 있을 것이다. 당시 종축개량협회 건물 지하서 2개월간 각계 권위 있는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집중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며 ‘우리 축산이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가 살려야 한다!’ 사명감을 갖게 됐다.”

박해천 팀장의 입을 통해 들은 등급제 초창기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담백한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다. 그중 돼지 판정 도중 냉장창고가 무너진 사고 얘기는

들으면서도 아찔했다. 특히, 천안에서 근무하던 시절 겪은 사고는 혼자 판정하던 중 그것도 본인이 서 있는 쪽으로 레일이 떨어지며 돼지가 우르르 쏟아졌다는 데, 얘기만으로도 꿈에 나올까 무서웠다. 그걸 “하하” 웃으며 “피했지만 다리는 돼지 사이에 묻혔었는데 다행히 빼 보니 쑥 빠지기에 잘 나왔지.”하던 박 팀장은 도대체 얼마나 담이 큰 건지. 동글동글한 인상에 유해보였던 그를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또, 홍성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겪었던 사고도 사람 ‘뜨악’하게 만들기는 매한가지였다. 동료와 둘이 함께 있을 때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황청심환을 하나 먹고 다시 판정했다’고 쓴 동료의 사건경위서가 사내 이슈가 됐다는 얘기는 요새말에 ‘웃꿨다’(웃프다. 웃기지만 슬프다의 약자)

한 번도 끔찍할 것을 두 번이나 겪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어지는 다양한 일화들을 듣다 보니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건가 생각해본 적은 없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다. 등급제 도입 초기, 때론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힘든 순간이 많았다는 얘기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익숙하게 들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건·사고를 이번처럼 자세히 들을 기회는 별로 없었기에 듣는 내내 콩알만 해졌다, 푹 떨어졌다 하는 간에 가슴을 여러 번 쓸었기 때문이다.

“평가사라는 직무에 회의를 가져본 적은 없고, 축산일 자체를 다시 생각한 적도 없다. 어릴 때 아버지가 소·돼지를 키웠는데, 용돈을 소 거름 치운 것으로 벌었다. 그냥 팔면 5,000원이라면 잘 말려 발효시켜 팔면 1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축산일을 바라보며 자라다보니 ‘난 축산



“이 출장소에서 만난 노명”이라는 녀스레와 달리 유쾌했던 직원들과의 휴식시간

학과를 가야겠다’ 확신이 있었다. 평가사가 된 후로도 마찬가지다. 내 길이 아닌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 오히려 젊은 혈기에 북한에도 가서 판정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

“초기에는 근무하며 어려움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덕분에 등급제만이 생산단계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도축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박해천 팀장. “이제는 기관이 발전하며 명칭도 바뀌고, 관계 업체나 지자체에 가면 전문가로서 공공기관으로서 그만큼 인정해준다.”며 등급제와 더불어 우리 축산이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힘이 될 수 있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리고 그 자부심과 여전한 사명감에 그는 2015년도 참 바쁘게 보냈다. 기본적으로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대전충남지원 이력팀장에 현재 논산계룡축협에 근무하며 해당 지역 출장소장을 맡고 있다. 도축장은 논산계룡축협 하나지만 6개 시·군을 관할하기에 해당 지역 이력제 관리도 모두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논산계룡축협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덜한 봄이나 돼야 그나마 6~7시께 정시 퇴근을 노릴 수 있고 보통은 야근이 생활화 되어 있다. 지난 10월, 판정량이 많을 때는 하루 3,000두까지 돼지가 나와 12시를 넘겨



모니터 뚫어져라..열혈 근무 모드!

다음날 작업을 끝내기도 했을 정도다. 이외에도 지원 직무교육 전문 강사, 행동강령책임관까지, 쓰고 있는 감투만 4개다.

이쯤 되면 그냥도 바쁠 텐데 그는 사내 야구동아리에 참가하며 짬짬이 야구도 한다.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원 최고령 선수로서 2루 주전으로 활약 중이다.

이걸로도 모자라 한 가지 더 욕심을 냈다.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3학년생이라는 또 다른 이름표다.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던 인문 쪽 공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스터디까지 참여하고 있다. 물론, 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한다지만 박해천 팀장은 “집에서 멍하니 TV 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인문 쪽을 새로 공부하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다.”며 설명을 더했다.

“앞으로 10년 후면 정년인데, 방송통신대학교가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지금부터 여러모로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5년 후에는 정년 후 할 수 있을 새로운 일을 하나 만드는 게 목표다. 뭔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정년 이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싶다.”

이밖에도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와의 인터뷰는 기승전‘회사일’이었다. 퇴비우스의 띠처럼 아무리 셋길로 빠져도 이야기의 끝은 결국 회사일로 돌아왔다. 인터뷰 마지막도 그랬다.

“일단은 우리원이 더욱더 발전하며 축산공사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우리원은 소프트웨어는 참 좋은데 하드웨어가 좀 아쉽다. 여기 출장소만 해도 도축장의 작은 사무실 하나, 외부 손님이 와도 차 한 잔 대접할 공간이 없다. 조직 내외부적으로 균형 있는 체계가 잡히고 축산에 대한 우리원의 전문성이 더 큰 역할을 하며 중장기적으로 탄탄히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동경선**



박해천 팀장을 이야기하는 ‘한 컷’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더 찍었으면 하는데요, 이번에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출게요. 이력팀장으로서 업무 모습을 찍을까요? 아니면 평가사로서 현장 모습을 찍을까요?” 여기에 그는 주저 없이 “내 기본이 평가사고, 일 그만두는 순간까지 쪽 그럴 텐데 평가사로서 찍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의 선택에 따라 고른 한 컷이 바로 이 사진! 습기가 많고 어두운 작업장 내 특성상 그의 모습을 제대로 담기가 어려워 부득이 고른 2차 대안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평가사로서 갖는 그의 자부심과 직업의식은 전될 것으로 기대한다.